

농가 고령화 심각... 70대 이상 절반 육박

작년 전국 농가인구 4.4% 줄고 가구 수도 2% 감소

전남 14만5천가구로 2위, 어가는 1만8500가구 1위

농촌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농가도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전국 농가 인구는 231만5000명으로, 지난 2017년(242만2000명)에 견줘 4.4% 줄었다. 가구 수도 102만1000가구로 2017년(104만2000가구)보다 2% 감소했다.

통계청은 노인들이 고령으로 농업을 포기하거나 전업해 농가 인구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지역 농가 수는 지난해 14만5000가

구(14.2%)로 2017년(14만6000가구)에 비해 0.9%(1000가구) 줄었다. 전남 농가 수는 전체 농가의 17.3%가 몰린 경북(17만6000가구)을 제외하고 가장 많았다. 전남 농가 수도 보면 전남(8만6000명·59.2%)은 전북(64.2%), 경북(63.0%), 경남(62.1%) 다음이었다. 전체 농가 인구 분포를 보면 70세 이상이 전체의 32.2%(74만5000명)로 전년도(73만명·30.1%)보다 2.0% 증가했다. 60대 이하 모든 나이 구간에서 농가 인구가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농가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44.7%로 전년

■ 시도별 농가 수 (2017~2018년) <단위:천가구, %>

	2017(A)		2018(B)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국	1,042	100.0	1,021	100.0
경기	117	11.2	113	11.1
강원	69	6.6	68	6.6
충북	73	7.0	71	6.9
충남	126	12.1	123	12.1
전북	97	9.3	95	9.3
전남	146	14.1	145	14.2
경북	179	17.2	176	17.3
경남	125	12.0	123	12.0
제주	32	3.1	31	3.1

(42.5%)보다 2.2%포인트 증가했다. 전국 어촌 인구는 지난해 11만7000명으

로 전년(12만2000명) 대비 4% 감소했고 임가 인구도 18만9000명으로 3.2% 줄었다. 어촌 가구 수는 전남이 1만8500가구로 전체 어가(5만2000가구)의 35.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전국 어촌 인구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60대가 전체 어가의 28.6%(3만3000명)로 가장 많았고 70대도 2만7000명으로 23.3%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어촌 인구도 전년도와 견줘 70대만 늘었다. 농림어업조사는 논·밭을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연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귀농을 했더라도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귀촌 인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계청 설명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구직 희망 여성들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 성료... 여수·나주·목포 예정

전남도는 17일 순천 팔마실내체육관에서 '2019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는 30여개의 직접 구인업체와 184개의 간접 구인업체가 참여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순천을 비롯한 전남지역 구직 희망 여성들에게 일자리 정보와 구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을 비롯해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소재 214개 기업에서 440여 명을 모집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구직여성 17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업체는 온라인에서 사전 접수를 받아 현장면접을 진행하거나 이력

서를 접수받아 박람회가 끝난 후 개별면접을 해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이 시대의 당당한 여성과 정립과 다양한 일자리 탐색 기회를 제공해 여성의 전 생애에 이르는 커리어 맵 작성을 돕는 박람회로 특색해 진행했다. 또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주제로 성평등 인식 개선 및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 을 위한 캠페인도 펼쳤다. 박람회장은 취업에 준비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직업심리 검사와 이력서 클리닉·이미지 컨설팅을 지원하는 '직업디자인관',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직종별 채용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직업&창업 체험관', 예비 창업자가 박람회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아이템을 소개하고 점검할 수 있는 1일 창업의 기회인 '여성친화관' 등 4가지 테마로 총70개 부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기 쉽고, 육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도록 최선을 다해 여성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여성이 행복한 전남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날 순천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9일 여수시, 10월 16일 나주시, 10월 31일 목포시, 총 4회의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19년 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가 17일 오전 순천팔마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여성 구직자들이 채용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동부권 순천시·곡성·구례·고흥·보성군 등 5개 시군 1700여 명의 구직여성 참여해 214개의 구인기업에 440여 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디스크 증세 허리통증 호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통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상고심 접수 이후 세 번째 연장된 구속 기간이 전남 자정을 기해 만료되면서 이날부터 기결수 신분이 됐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 검사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나주학생독립기념관, 4월 꼭 가볼 현충시설

광주지방보훈청은 17일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4월에 꼭 가봐야 할 우리 고장 독립운동 현충 시설로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선정했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2008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인 옛 나주역에 개관했다. 기념관에서는 학생독립운동의 배경과 과정, 나주의 식민지적 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국내 3대 항일운동 중 하나인 광주학

생독립운동은 전국 320여개의 학교와 5만4천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독립운동이다. 1929년 10월 29일 나주에서 광주로 통학하던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나주역에서 충돌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방문객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토요체험마당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문학자원 활용 관광프로그램 이달부터 운영

전남도가 지역의 문학자원을 활용한 문학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학자원을 활용한 문학체험·관광 프로그램은 전남지역 출신 중 널리 알려졌거나 숨겨진 작가의 작품, 생가, 문학관, 영화 세트장, 작품 속 배경지를 활용해 문학축제, 문학콘서트, 문학유산 답사, 문학기행,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이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개 사업을 선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는 사업은 보성군의 태백산맥 문학관에서 조정래 작가와 함께하는 북 토크와 전국 백일장 대회, 담양군의 해동 문화 예술촌에서 인문학강사 초청 및 라디오 야외 스튜디오와 시 낭송반 운영, 강진군의 1930년대 시문학파 동인으로 활동했던 김현규 시인의 발자취를 찾는 현구 문학제다. 올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목포시의

'영화 1987'로 잘 알려진 연희네 슈퍼를 출발점으로 시화공목길 답사, 차범석 생가와 김우진 거리 등 근대문학길 투어, 순천시의 김승옥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콘서트, 나주시의 백호 일제의 원생문유를 초등학교생들이 대화와 그림으로 표현하기, 곡성군의 '마을로, 학교로 찾아가는 문학교실'이다. 전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전소설인 '심정전', '홍길동전'과 20세기 한국의 베스트셀러에 선정된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무대이고, '산불'의 차범석, '서편제'의 이청준, '모란이 피기까지'의 영광 김윤식 등 셀 수 없이 많은 문인들을 배출한 대한민국 대표 여행이다. 최병만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지역 대표 문학자원을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교육·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엄 10월 개최

국내외 해상교량 전문가와 기술진 500여 명이 참가해 신기술을 공유하는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엄(II)이 오는 10월 세계적 해상교량의 메카를 꿈꾸는 전남에서 열린다. 전남도는 17일 신안군에서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엄(II)에 대비해 조직위원회 구성과 행사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서석구(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KIBSE) 회장, 오세찬 익산지방국도관리청 해상교량안전과장, 전남도, 여수시 등 관련 7개 시군 국·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엄(II)은 10월

24~25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주관으로 열린다. 국제교량학회의 인일 및 기술진과 국내 주요 국책연구기관, 학회, 건설 분야 회사 엔지니어 등 기술인들이 참여해 신기술 발표 등 학술행사로 열린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국제심포지엄에 대비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행사 프로그램 구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10월에 개최되는 국제적 토목행사를 통해 전남 SOC 완성의 역년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삽니다

전국 임야/단독섬
지분물건환영.010-6834-7400

교 환 전문

빌딩/토지/임야 등 모든 부동산
정확/신속처리.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임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군 해례면 바다 150m거리 대지 790㎡ 3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신안 지은현 한울리 해수욕장 접 1654㎡ 별장 등 적합한 655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남구 방림동 주거지역 1420㎡ 다세대·원룸 적합 16억4천
- 곡성 임면 매실밭 13000㎡자연인생활적합 신고는 2억5천 매도 1억2천
-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1084㎡ 원룸·다세대 적합 8억7천
- 영암 삼호읍 용당리 공업지역 6019㎡ 은행 2억3천 매도 4억2천
- 운암동 대항아파트 지하 205㎡ 사무실 등 다용도 교환가능 1억8천
- 서구 아파트단지 반지하노래방 265㎡ 룸7 교환가능 임대중임 4억7천
- 강진 성전면 월출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함평 염산면 바다 접 땅 1280㎡ 건물 183㎡ 식당·노래방 3억5천
- 충장로 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25억
- 서석동 4층상가 조대 앞 땅 405㎡ 건물 919㎡ 보증금 6천 월 280 임대 중 12억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도지 155㎡ 건물 4층 263㎡4억4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변 6111㎡ 지구단위 해 아파트 적합 220억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계획관리지역 11607㎡ 금매도 4억5천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노인·요양시설 등 적합 -일부는 광주 원룸부지와 교환 가능 4억 7천
- 북구 용두동 6차선점 4899㎡ 물류창고 등 다용도 적합 45억
-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팬션 대지 2180㎡ 팬션3동 372㎡ 8억
- 북구 북동 금남로 57억 대로접 중심상업지 364㎡ 사옥 등 적합 1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신창동, 근린상가

-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8억 8천만원(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기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